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2. 3

주간 달러/원 동향(1/20~1/31)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CPI 둔화에 따른 안도감과 트럼프 취임을 앞둔 관망세를 반영하며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속도조절 가능성에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큰 폭 하락
- 중반,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수급상 매도세가 유입된 가운데 추가 하락
- 후반,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향방 등 대외 불확실성에 횡보세 보였으나 트럼프의 금리인하 관련 발언과 BOJ 금리인상에 강달러 제한되면서 1430원대 마감
- 설 연휴 이후, 트럼프의 관세 부과 우려로 인한 강달러에 상승 마감

달러/원 전망

-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 영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이 달러 강세 흐름을 주요하게 조성할 전망
- 여기에 미 12월 PCE물가가 전월비 0.3% 상승하며 오름 폭이 커진 측면도 연준의 향후 매파적 스탠스를 일부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됨. 여기에 보면 연준 이사의 인플레 상승 리스크 상존 언급 등도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 다만, 설 연휴 기간 중 위험회피 요인 충격 및 관세 요인 등에 따른 원화의 추가적 절하 속도 확대 시 당국 경계감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 등이 환율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임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0.0	1,461.0	1,428.3	1,452.7	-7.3

예상거래범위

1,460원 ~ 1,480원

유로·엔화 동향 (1/20~1/31)



유로화 동향

- 전주, 유로존 제조업 경기 개선과 서비스업 확장세 등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에 유로화는 1.04달러대로 반등
- 초반, 댁시크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를 반영하며 약세 출발. 이어 FOMC와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유입된 가운데 추가 약세를 시현
- 중반, 연준의 매파적 금리동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짐
- 후반, ECB의 25bp 추가 금리인하 결정과 독일 경기 침체 우려에 약세 폭 확대. 이어 주 후반, 통화완화 기조를 지지하는 ECB 관계자들의 발언에 약세를 보이며 1.03달러대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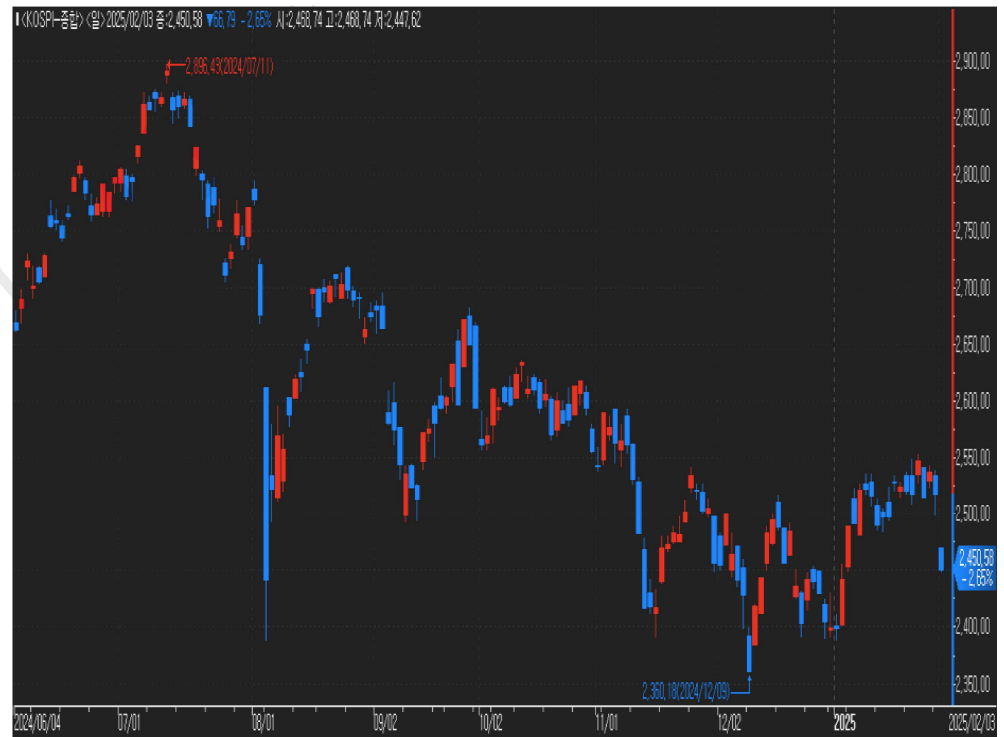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전주, 예상을 크게 웃돈 일본 CPI와 BOJ의 추가 금리인상 결정에 엔화는 강세로 전환
- 주초, 댁시크 충격 속 뉴욕증시 하락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엔화는 강세 출발. 이어 FOMC를 앞두고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155엔대로 되돌림
- 중반, 미-일 재무장관이 외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로 전환
- 후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BOJ 부총재의 발언에 큰 폭의 강세를 시현. 이어 주 후반, 우에다 BOJ 총재가 완화적 금융여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영향에 약세 전환 후 155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276	1.0533	1.0266	1.0374	+0.009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6.2	156.7	153.7	155.1	-1.1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0~1/3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금리는 트럼프 2기 체제를 앞두고 위험 선호 영향을 반영, 상승 흐름을 나타냄. 반면 한은이 1월 경제 평가에서 성장을 하향 조정 판단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하락 흐름 보였지만,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되며 하단 제한된 흐름. 이어 트럼프 취임 이후 발표된 관세 정책 발언이 시장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시장의 인식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
- 중반,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10% 부과 언급 소식과 대내적 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앞둔 수급 부담 등으로 약보합 흐름. 후반 들어, 국고채 금리는 구간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중단기 구간은 국내 4분기 성장률이 정치불안정성 여파로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침에 따른 영향과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하락 흐름 시현. 이후 설 연휴 전, 국고채 금리는 장기 구간 위주로 상승했으나, 설 연휴 이후, 미 FOMC 금리 동결 결정 영향 및 국고채 발행 수급 부담 등을 반영하며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트럼프 2기 체제 출범을 앞둔 경계감 강화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지속 등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약보합 출발. 이어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장이 우려했던 보편 관세나 대중국 특별 관세 등 우려했던 정책이 나오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지만, 거래 강도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약보합 흐름 지속
- 중반, 장 개장 전 전해진 중국 10% 관세 부과 소식으로 코스피는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기존 트럼프의 SNS를 통해 언급된 측면이 반영됨에 따라 이를 빠르게 반영시키며 시장은 상승 흐름 복귀
- 후반 들어, 트럼프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과 설 연휴 전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니즈 등으로 큰 폭 하락 후, 설 연휴 전,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 메시지에 상승 전환. 이어 설 연휴 후 31일 거래에서 코스피는 설 기간 중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딥시크 쇼크를 반영하며 위험회피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하락 마감